

생명의 고향, 인삼의 땅 금산



강 욱 / 자유기고가

충청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금산군은 전체 면적의 71%가 임야인 산악군으로 동쪽으로는 충남에서 제일 높은 서대산과 천태산, 서쪽으로는 대둔산, 남쪽으로 기봉과 수로봉, 북쪽으로는 만인산이 둘러싸고 있다. 또한 가운데에 진악산이 자리하여 커다란 분지를 이루고 우주와 통신하는 접시안테나 모양을 하고 있어 금산(錦山)에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상징인 위성통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은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산들이 405개의 작은 분지를 이루면서 마을을 형성하여 먼 곳의 큰 산과 낮은 능선, 그리고 강과 냇물이 황금분할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긴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이곳은 산이 지극히 높아서 들어갈수록 그윽하고 깊다.” 고 하였다.

그윽하고 싶은 금산의 지령은 백제시대의 효행설화를 간직하며 금산인삼을 잉태하여 오늘날 전국 인삼의 80%가 거래되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우뚝 솟아 있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과 금남정맥을 이루는 산맥이 충청, 전라, 경상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국토의 애환을 간직하며 의로운 사람 문화와 인삼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금산에서 눈이 즐거운 또 한 가지 이유는 ‘길’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산과 산을

있는 띠처럼 혹은 강줄기를 따라 늘어놓은 비단 천처럼 펼쳐진 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도 그 길을 달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물론 멈춰 서서 길가의 작은 꽃들을 한참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즐길 수 있다. 이렇듯 금산의 풍경이 주는 미덕은 보기에만 좋은 데 있지 않다.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금산의 풍경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다.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다. 군내 어디를 가도 인삼밭을 볼 수 있고 읍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삼 시장인 수삼 센터와 약초 상가가 있다.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금산에서는 우리나라 인삼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는데 바로 개삼터와 인삼종합전시장이다.

금산읍에서 남쪽인 진안 방면으로 9km 정도 떨어진 남이면 성곡리에는 금산인삼의 발원지로 알려진 진악산이 있다. 성곡리에서 ‘개삼각 1.5km’ 라는 입간판을 따라 오른쪽 마을길로 들어가면 진악산 뒤쪽의 깨끗한 절 보석사만큼이나 한가로운 동네가 이어지고, 동네가 끝나는 곳에서 조그만 사당 개삼각을 볼 수 있다. 이 개삼각은 옛날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진악산 아래에서 인삼을 심었음을 기념하는 사당이다.

현재 금산에서는 1981년 이후 매년 9월에 ‘금산인삼축제’를 열고 있으며 이 개삼각에서 제향하는 것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인삼아가씨’ 선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신명나게 벌어지는 이 축제는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전에서 금산으로 가다 보면 읍내에 들어서자마자 시장 안에 인삼 종합 전시관이 있어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해 놓았다.

열매를 빼고는 모든 부위가 음식의 재료로 쓰이는 인삼은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일등 식품이다. 인삼정과 인삼장아찌, 인삼박고지 등 인삼으로 조리된 인삼정식이 금산만의 자랑으로 금산군에 여러 식당이 있다. 금산의 토종 인삼, 녹용, 대추, 밤 등과 닭이 조화를 이루며 약초의 고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별한 삼계탕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못 잊어 다시 금산을 찾는다고 한다.

충절의 고장 금산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칠백의총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있다. 특히 임진왜란 때의 격전장으로 승전과 패전의 장(將)이 함께 상존해 있다. 1963년 사적 105호로 지정된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 죽은 조현과 승장 영규, 그리고 이들을 따르던 의병 칠백 명이 묻힌 무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석 달 만에 금산

은 왜군 15,000명에게 점령되었다. 이때에 조현은 그가 모은 의병 1,600명과 함께 청주성을 되빼앗고 다시 행군하여 온양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는 충청 감사 윤선각한테서 “전라도 금산에 왜적이 창궐하여 인민의 피해와 재산의 약탈이 심할 뿐만 아니라 곡창인 호남 지방으로 향할 것 같으니 먼저 후방을 교란시키는 왜적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조현은 후원군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승장 영규와 의병 700명을 데리고 금산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이십일 만에 금산에 도착하여 조현은 금산성에서 북쪽으로 오리가 떨어진 벼들의 경양산에 진을 치고, 승장 영규는 성밖 십리에 있는 분별의 조그마한 산에 진을 쳤다.

1592년 8월 18일, 후원군이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조현은 이편 군사가 왜군에 견주어 수효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이 백척간두에서 이 마당에 어찌 오늘의 삶과 권세를 유지하며 목숨을 아까와 하리오” 하고 외치며 싸울 것을 결심했다.

조현은 북쪽에서, 영규는 서쪽에서 한꺼번에 금산성으로 공격해 들어가 있는 힘을 다해 네 차례나 맞붙어 싸웠으나 워낙 부족한 수효에 무기도 제대로 없었던 의병 700명과 조현, 영규는 싸움터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왜군도 많은 해를 입어 진격하지 못하고 옥천 쪽으로 내뺐으며, 몇 달 뒤에 금산성까지도 내놓게 되었다.

이 싸움이 끝난 나흘 뒤에 조현의 제자 박정량과 전승업이 이들의 시체를 모아 바로 그들이 싸웠던 곳에 합장하고 ‘칠백의사총’이라고 이름 지었다. 1603년에는 ‘중봉 조현 선생 일군 순의비’가 세워졌고 1634년에는 ‘순의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일정시대에 의총이 헐리고 이곳에 속한 땅과 재산이 강제로 처분되어 폐허가 되었다. 그 후 해방이 되자 이곳 주민들은 의총을 보수하고 일군 순의비를 다시 세웠다.

정부는 1963년에 이곳을 사적 105호로 지정하고 이때부터 칠백의총의 둘레를 단장했다. 금산읍에서 추부면을 지나 대전시로 가는 길의 왼쪽에 보이는 칠백의총은 2만여평의 잘 정리된 터 위에 순의비, 사당, 기념관 따위를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금산군에는 이치대첩지, 육백고지 등을 비롯하여 흥범식 순절비, 고경명 순절비 같은 비석들이 오십 개 쯤이나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본디 금산군에는 절이 많았다. 백제와 통일 신라를 거치는 동안에 진약산, 대둔산, 서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절만 열네

군데가 지어졌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절들은 대부분이 불타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금산군에서 큰 절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옛 절의 규모도 가늠해 보기가 어렵지만 불타버린 터 위에 같은 이름으로 세워진 태고사, 보석사, 신안사 따위가 있다. 국사봉에 있는 신안사 대광전은 지방 유형 문화재 제 1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곳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 중에는 천년쯤 살아 왔음직한 추부면의 은행나무가 있다. 높이가 20m이고 둘레는 12m가 넘는다. 해마다 정초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는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금산군에는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부터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름들이 손꼽혀 왔다. 첫째가 칠갑산과 덕숭산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세 번째로 도립 공원이 된 대둔산이다. 충청남도 논산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에 함께 걸쳐 있는 대둔산은 절벽과 계곡, 폭포 따위의 경관과 함께 태고사, 석천사, 이치 대첩지 같은 사적지도 간직하고 있다. 최근에 등산길이 잘 닦여진 뒤부터는 서울에서 하루치기로 다녀가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다.

십이 폭포는 진악산에 있는 크고 작은

폭포 열두 개를 말하는데, 이 십이 폭포도 절경에 든다. 가장 큰 폭포는 높이가 20m이며 물도 또한 많아서 웅장한 모습과 함께 물소리가 듣기 좋다. 중국의 소동파가 이 나라에 유람 왔다가 이곳에 이르러 중국의 양자강 상류인 적벽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경치를 발견하고 같은 이름을 붙였다는 사대성 짙은 전설을 지닌 적벽강도 팔경에 든다. 적벽강은 금강이 노령산맥 사이를 굽이쳐 흐르다가 부리면 수통리 근처에 와서 병풍처럼 둘러쳐진 층암절벽에 막혀 이루어 놓은 맑고 깊은 늪이다. 강변의 버들이 아름답기도 하려니와 그 가까이에서는 역시 팔경의 하나인 신촌 송림도 있다.

한편 금산군과 충청북도 옥천군과의 경계에 있는 서대산도 절경에 드는데, 산세가 웅장하고 바위틈마다 깨끗한 샘이 흐른다. 서쪽 산기슭에는 옛날에 서대사라는 큰 절이 섰던 자리에 원흥사라는 절이 세워져 있다. 산꼭대기에 올라서 북녘을 바라보면 대전시가 발아래에 깔려 있고 멀리로는 옥천 땅이 굽어보인다. 산기슭에까지 버스가 다니므로 찾는 이의 발길이 잦다.

금산에 모내기철이 되면 유장한 가락이 실린 모내기 민요가 온 들녘을 덮어 산을 넘어 십리 밖에서도 들린다. 부리면 평촌리의 자연마을인 물폐기(수촌마을)에 고스

란히 전해 내려오는 ‘물떼기 농요’의 흥겨운 가락은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가 중심을 이룬다. 옛날에는 동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떼기 농요의 노랫가락을 모르고서는 농사꾼 대접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한 여름날에 사람들은 정말 허리가 휘어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다고 소리를 하며 들 소리에 묻혀 있는 월출동산을 바라본다. 무엇이 있기에 이 일을 숙명처럼 하여야 하고 또 무엇이 좋아 노래를 하였는가,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다. 대자연 안에서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짐과 같이 이러한 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저절로 입과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자연의 소리이다. 이 소리 속에는 금산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유장함과 처연함 속의 깨끗함이 그대로 배어있다.

그 중에 방아소리 한 대목을 들어보자. 이 노래 속에는 논에 모를 심고 추수를 하여 방아를 짚은 다음 찜을 싸서 먹는다는 나락의 순환구조, 즉 생명의 순환구조가 담겨 있다. 이러한 순환구조가 있기에 사람들은 노래는 거짓이 없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힘든 일을 하였고, 그래서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는 문화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한편 금산에서는 논을 다 매고 장마도 지난 칠석날이나 백중날 ‘두레 논다’ 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루를 즐기며 그해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을 장원으로 뽑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는 ‘송계 길 닦는 날’이라 하여 여러 마을이 모여 길도 닦고 풍물도 치는 놀이가 더욱 발달하였다. 겨울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한데 산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을 정하여 나무를 했다. 심지어는 풀마저 ‘풀령’이라는 영이 내려야 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금산은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민속예술의 보고이다. 평야지대의 두레와는 형태가 다른 산악지방 특유의 나무 두레인 송계놀이와 더불어 금산좌도풍물, 디딜방아놀이, 방아소리 등은 산악지형인 금산의 깨끗하고 유장한 민속 문화로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

